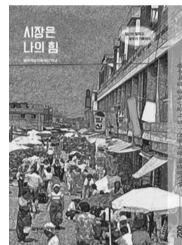


“시장에서 전쟁같은 삶... 난 1톤 트럭 같았당게”

시장의 나의 힘

광주여성가족재단 엮음 | 무료 배포



광주여성가족재단이 광주의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여성상인 6명의 구술 채록을 엮어 책 '시장의 나의 힘'을 15일 발간했다. 책은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광주 여성사 발굴 및 아카이빙 사업의 두번째 결과물이다.

이번 구술 채록집은 서민들이 기술이나 자본과 같은 특별한 진입장벽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산업화 전후 생계유지의 수단으로써 많은 여성들이 유입돼 상업에 종사한 측면, 즉 '시장의 공간성'에 주목하고 있다. 구술에 참여한 여성상인들은 1970년대 시장에 진입해 1980~90년대 초반까지 전통시장의 황금기를 보내고, 1990년대 중반부터 쇠락하기 시작한 전통시장의 역사를 온몸으로 살아낸 이들이다. 이들은 시장의 진입 계기와 업종별 노동 경험, 시장 특성에 따른 상업행위의 차이, 일과 가정의 양립, 장사의 기술과 원칙 등을 구술했다.

책에서 소개된 여성상인은 △양동시장의 박수복(1943년생, 장사경력 54년, 식당) △서방시장의 박금자(1949년생, 장사경력 48년, 방앗간) △대인시장의 한순덕(1951년생, 장사경력 45년, 가방판매) △남광주시장의 구순자(1961년생, 장사경력 41년, 수산물판매) △양동시장의 정



광주의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여성상인 6명의 구술 채록을 엮은 책 '시장의 나의 힘'에 소개된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수복, 박금자, 한순덕, 문경자, 정명순, 구순자씨. 광주여성가족재단 제공

명순(1958년생, 장사경력 41년, 한복 제작) △말바우시장의 문경자(1960년생, 장사경력 32년, 과일판매) 등 총 6명이다. 연령은 62세부터 81세에 걸쳐 있으며 장사경력은 최소 32년 최대 54년에 이른다.

이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된 계기는 다양하다. 리어카에서 호떡과 튀김을 파는 등 거리에 좌판을 열다가 점포를 얻게 된 이가 있고, 부모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가게를 이어 받은 이도 있으며,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친지의 권유로 장사를 시작하게 된 이들도 있다. 여성상인들은 저마다 장사철학을 세웠다. “이득 덜 보고 잘 만들어주면 손님이 따르게 돼 있다(박수복)”,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가는 사람을 기본 나쁘게 해서는 안된다(한순덕)”, “딱 싸게는 안 드리지만 최고 싱싱하고 좋은 물건을 갖다가 정직한 가격을 드리려는 그 마음으로 제가 장사를 해요(구순자)” 등이 있다.

새벽부터 밤 늦게 점포를 지켜야 하는

상인이라,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했던 구술자들은 그 삶을 '전쟁' 같았다고 표현한다. 특히 임신과 출산, 양육의 시기에 장사를 겸해야 했던 여성들은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럴 수 없을 경우 아이를 점포에 얹혀놓고 손님을 맞았으며, 급할 때는 이웃 상인에게 맡겨 놓기도 했다. 기저귀와 분유 등 한 바따리를 싸들고 출근하는 자신을 '1톤 트럭' 같았다고 표현한 구술자도 있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경험도 소개돼 있다. 시장의 여성상인들의 '주먹밥'을 통해 광주 공동체를 실현했다. 광주가 봉쇄되고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자동차가 불타고 총소리가 나는 도시 한가운데, 여성들은 '우리 애들 밥이나 먹이자'는 단순하지만 고귀한 연대를 실천했다. 이는 광주가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그 이야기 또한 책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이들은 광주 전통시장의 산 역사이자 주역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여성상인들에게 시장은 그저 물건을 파고 돈을 버는 생존의 공간을 넘어 여성 경제인으로서 정체성을 그려낸 성장의 공간이었다. 책에 소개된 여성상인들의 이야기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시장의 부흥과 쇠락 등 서민 경제의 역사이기도 하다.

김경례대표이사 "전통시장을 자신의 일터이자 삶터로 삼고 최선을 다해 생활을 일군 여성상인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런 여성들의 삶이야말로 광주공동체를 만들어온 저력이자 문화적 유산이다"며 "책의 제목처럼 '시장의 나의 힘'이고 '여성은 광주의 힘'인 것이다. 앞으로 재단은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광주여성들의 활동과 삶을 역사로 만드는 일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구술채록집은 무료로 배포되며 구독 신청은 구글 폼(<https://forms.gle/4xYGVkhFcgTNEtre9>)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062-670-0565)로 문의.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정성껏 일궈낸 시의 숲”

나무가 하는 말, 산책할까요
위난희 | 그림과책 | 1만3000원



지역에서 33년동안 국어교사로 교단에 섰던 위난희씨가 틈틈히 나무를 식재하고 가꾸며 실천한 숲속살이 체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들이 소개돼 있다.

시들은 위씨가 지난 20여년 동안 개인적으로 나무와 꽃을 심고 밭과 숲을 가꾸었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것들이다.

시집은 △제1부, 사랑이 살린다 △제2부, 노루숲에 깃들다 △제3부, 길 위에서 시를 쓰다 △제4부, 여순사건, 부치지 못한 편지를 쓰다 △제5부 나무가 하는 말, 산책할까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 사랑이 살린다'에서 대표작은

'인생은 아름다워'이다. 위 시인은 모든 사람들의 삶은 귀하고 아름다움을 지녔다고 독자들에게 위로와 전한다. '제2부 노루숲에 깃들다'에서 대표작은 '숲의 생리학'이다. 위 시인이 20여년 동안 틈틈히 나무를 식재하고 가꾸며 실천한 숲속살이 체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들이 소개돼 있다.

'제3부 길 위에서 시를 쓰다'에서 대표작은 '순천의 봄'이다. 남도의 길에서 만난 사람, 자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주제로 한 서정시를 모아 엮었다. '제4부 여순사건, 부치지 못한 편지를 쓰다'에서 대표작은 '와온댁의 부치지 못한 편지'이다. 여순사건을 기억의 되새김으로 되살려 화해와 용서를 다뤘다. '제5부 나무가 하는 말, 산책할까요'에서 대표작은 '말구슬나무집에서'이다. 이웃과 연대하는 일상의 기쁨을 주제로 한다. 도선인 기자

기후위기시대 사라져가는 남도풀꽃 70여종 담아

굿바이 남도풀꽃
김영선 | 상상창작소 봄 | 2만2000원



출판사 상상창작소 봄이 남도에 있는 무등산을 비롯한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사라져가는 풀꽃 70여종을 정리한 '굿바이 남도풀꽃'을 펴냈다.

4계절에 맞춰 피는 멸종위기 식물과 풀꽃, 그리고 각 국립공원에 자생하는 고유종 등을 소개한 책이다.

'굿바이 남도풀꽃'의 저자 김영선 박사는 지역에서 오랜기간 환경운동가로, 생태학자로 활동하며 장릉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이끌어낸 생태학자이다. 그는 고향 외나로도 출신으로 전남대학교 해양학과

를 거쳐 호남대학교 대학원에서 환경생태학을 전공했다. 호남대학교·동강대학교·부산대학교 등에서 환경생태학 및 식물학을 강의했고, 도시공원, 습지,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의 보전 및 복원 활동에 관한 연구·학술활동에 참여해왔다. 저서로는 '생물다양성&광주습지', '유럽에서 도시 지속가능성을 보다', '바람소리, 숲길에 머물다' 등 공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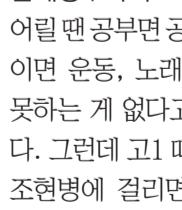
이 책은 크게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됐다. 1부는 4계절에 맞춰 피는 멸종위기 식물과 풀꽃을 정리했고, 2부는 지리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월출산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자생하는 남도풀꽃과 고유종 등을 각 장에 나눠 담았다.

생태학자 김영선씨는 '굿바이 남도풀꽃' 발간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남도풀꽃에 다시 한번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자연은 인류의 기본자산이자 생명의 근원이다. 모든 생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엄성을 갖는다. 이 풀꽃들이 지닌 하나하나의 생태적 특징을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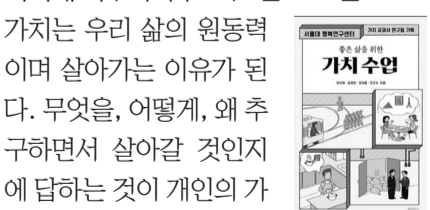
한편 16일 금요일,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환경운동가로, 생태학자로 활동하며 장릉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이끌어 냈던 생태학자 김영선 박사가 광주 에너지파크 '해담마루'에서 '굿바이 남도풀꽃' 출판기념 책담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는 오후 7시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기후위기시대에 사라져가는 남도의 희귀식물과 고유종 식물을 통해 남도가 직면한 생물다양성 위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도선인 기자

역경이 싸대기를 날려도 나는 씨익 웃는다
김세영 | 카리스 | 1만6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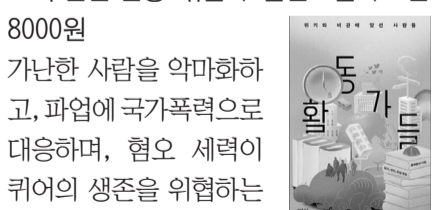
어릴 땐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노래면 노래,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 1 때 동생이 조현병에 걸리면서 역경이 시작됐다. 스무 살 땀을 싸우던 부모님이 이혼했다. 33세에는 희귀난치질환 판정을 받게 되고 그 와중에 치매, 파킨슨 환자가 된 아빠를 돌보아야 했다. 역경에 역경을 거처온 저자는 여전히 빛나는 학벌, 두둑한 연봉, 내 집과 자동차 등 내세울 만한 게 없지만 씨익 웃으며 말한다. "야 인마! 나에게 역경은 경력이야."

가치 수업
이석재 외 | 북하우스 | 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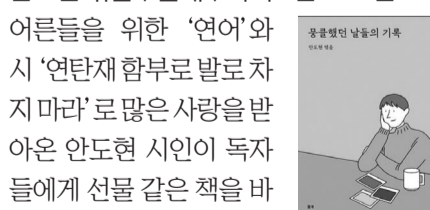
가치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며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 무엇을, 어떻게, 왜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답하는 것이 개인의 가치관이다. 그와 동시에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책은 한창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나이대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치에 관한 대화를 나눌 단단한 토대를 마련해준다. 흔한 일상 에피소드를 통해 다양한 윤리학적 입장들을 소개해주면서, 독자 스스로 입장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활동가들
보리·현반·현창 엮음 | 빨간소금 | 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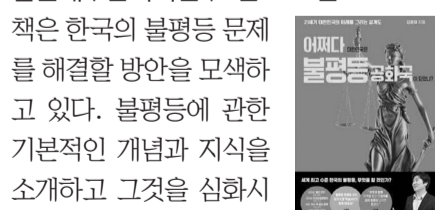
가난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파업에 국가폭력으로 대응하며, 혐오 세력이 쿼어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에 '위기'는 분명해 보이고 현실을 '비관'하기는 쉽다. 그 분명하고 쉬운 길 앞에서 설득과 비판을 택하고 결국엔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 책 '활동가들'은 '현장의 위기'에 맞서 '혁명'을 경험하고 '이제 사회운동은 망했다'는 비관에 맞서 '다음 세계'를 그리는 활동가 11명의 이야기를 전한다.

몽클했던 날들의 기록
안도현 엮음 | 물개 | 각각 1만5000원



어른들을 위한 '연어'와 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안도현 시인이 독자들에게 선물 같은 책을 바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탄생하는 이야기의 힘을 믿는 안 시인이 산문집 2권을 엮어냈다. 안 시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떼를 쓰듯 이야기를 써달라 졸랐고 20대 청춘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이력을 지닌 다양한 계층의 필자들이 콜라보를 이뤄 사연을 보냈다.

어쩌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 되었나
김윤태 | 간디서원 | 1만8000원



책은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불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을 소개하고 그것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했다. 특히 세계 각국의 불평등 수준이 다른 원인을 정부의 역할에서 찾고 정부의 정책 특히 조세제도와 사회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공정의 가치'와 '사회적 자유'를 원칙으로 세우 보편적 사회보험 확대, 노인기초연금 인상, 청년수당 도입 등 적극적인 공공정책을 주문한다.